

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논의 진전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됐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F
T
A

우리나라, 매우 보수적으로 관세양허안 작성

이번 3차 협상은 지난 8월 15일 교환된 관세양허안(각 품목별 관세인하계 확산)을 놓고 처음으로 개별 품목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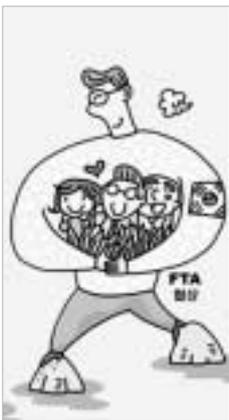
농산물에 있어 미국은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욕적인 목표로 협상에 임한 반면, 우리는 관세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가져왔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어렵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했다.

양허안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 있는 품목, 일정 기간에 걸쳐서 철폐할 수 있는 품목, 관세 철폐가 어려운 품목 등으로 나누어 만든다.

미국은 미국 농산물 관세철폐기간을 5개 그룹(즉시 철폐, 2년, 5년, 7년, 10년 철폐)으로 나눠 우리측에 보내왔다. 우리가 제시한 관세철폐기간도 5개 그룹(즉시철폐, 5년, 10년, 15년, 기타 그룹)으로 나눠지지만 관세철폐기간이 미국보다 길다.

한·미 FTA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가 지난 9월 7일 오후(한국시간) 숙소



인 웨스턴 호텔에서 한·미 FTA 각 분과별 대표들과 함께 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또 기타 그룹은 사실상 관세철폐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제시한 양허안대로 협상이 종결된다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모든 품목을 제외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FTA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자유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FTA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나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집요한 공격이 예상되는데 미리부터 우리의 속을 다 내보일 필요는 없다. 협상의 최종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최대한 보수적 입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대개 협상에서 양허안은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고쳐진다. 따라서 최초 양허안이 그대로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며, 다분히 전략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FTA를 보더라도 최초 양허안과 최종 협상결과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농산물을 보수적으로 만든 것처럼 미국은 공산품과 섬유에서 많은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일단 제외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감하지 않은 품목부터 먼저 논의

우리는 미국 측에게 한국의 농업은 매우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많아 협상 과정에 이런 민감성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측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없애더라도 부담이 적고 영향이 거의 없는 품목부터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감한 품목부터 시작하면 협상 자체가 어렵고 난관에 부딪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품목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일까? 미국이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은 거의 없는 품목,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거나 축산사료의 원료가 되는 품목, 관세가 아주 낮아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 등이다.

실제로 이런 품목들은 이미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국내 생산이 적어 수입으로 대부분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더러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다.

양허안 개선과 농산물세이프가드 주고 받기

이번에 우리는 주로 미국측의 요구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할 예정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이 어려운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하고 또 앞으로 여러 차례 협상이 있고 양허안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만큼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할 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지 않고, 미국이 이미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한 마당에 양허안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요구할 사항은 많지 않다.

대신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농산물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우리에게 세이프가드 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고,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가 양허안을 개선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허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지, 어떤 형태의 세이프가드 제도가 될 지 등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양측이 이런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4차 협상 또는 그 이전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실무안을 만들더라도 관련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양허안 수정 범위와 수준은 세이프가드 제도 관련 논의의 진전 정도, 민감 품목에 대한 고려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며, 농업 이외 다른 분과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4차, 5차 협상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논의될 것이다. 다른 분과와 달리 농업은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 품목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들 수도 있고, 될 듯 하다가도 작은 일이나 뜻밖의 상황으로 결렬되기도 한다.

아직 민감한 부분은 손도 대지 않았으니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머리를 맞대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왕 시작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은 적이 없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협상단의 각오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누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데에 인간의 참된 영광이 있다.

- 스미스